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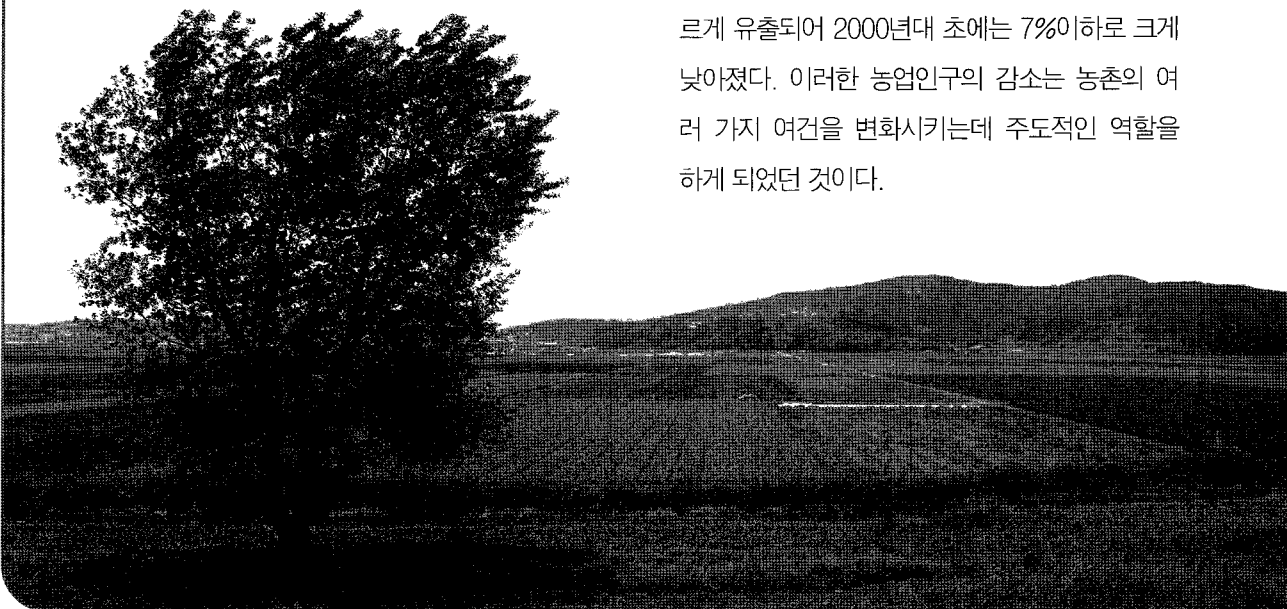
생활주변 악성 잡초 제거로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우리 생활주변의 문제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곧 깨끗한 농촌을 만들어 갈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들 잡초 제거에도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 주변 생활여건이 크게 변하면서 생활주변의 잡초 군락 형태가 변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생활주변에는 옛날에는 보지 못하던 덩굴성이나 대형 잡초들의 군락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잡초군락의 형태는 식물생태계를 단순화 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잡초군락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주변 여건은 △인구의 구성 △취사 및 난방 연료 △작물재배에 사용되는 비료 △가축의 사육형태 등의 변화를 꼽을 수 있는데 이들 여건의 변화양상을 보자.

첫째, 우리나라 인구구성이 60년대 초반까지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여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육박하다가 60년대 중반 이후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업인구가 산업화 지대로 빠르게 유출되어 2000년대 초에는 7%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농업인구의 감소는 농촌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변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취사 및 난방 연료 사용의 변화로 70년대 이전에는 나무(지엽, 장작, 산야초, 잡관목 등)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연탄, 석유, 도시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시대로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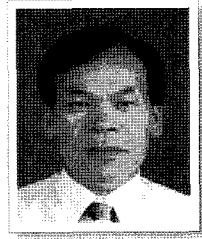
셋째, 비료의 사용은 가축의 구비나 산야초로 만든 퇴비를 이용하던 시대에서 화학비료에 의존한 농사를 짓게 되었다.

넷째, 가축의 사육형태는 소를 농가마다 1-2마리 키워 농사에 이용하면서 가축의 먹이로 주변 잡초와 농업부산물을 이용하던 시대에서 우유와 고기의 소비가 늘면서 기업축산의 형태로 변하여 가축의 먹이 또한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고품질의 조사료 급여 및 비육을 위하여 배합사료 급여 형태로 바뀌었다.

문제잡초,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심 가져야

이와 같이 70년대를 전 후로 하여 난방 및 취사 사용 연료와 비료의 형태, 가축의 사육 형태 등 생활 여건이 크게 바뀌면서, 우리 주변의 잡초군락 형태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즉, 70년대 이전은 주변발생 잡초의 용도가 많아 수시로 예취하게 되므로 식생에 교란(攪亂)이 많았던 시대로 볼 수 있고, 70년대 이후는 이용가치가 없어 자연 상태로 방치하여 교란(攪亂)이 적은 시대로 볼 수 있겠다. 즉 교란이 많았던 시대의 잡초군락 형태는 왜소(矮小)형이면서 불량한 환경여건에서도 종자를 생산하거나, 뿌리로 번식하는 잡초들이 군락을 이루었으나, 교란이 적은 70년대 이

후의 잡초군락 형태는 주변 식생을 자연 상태로 방치하게 되므로 덩굴성이거나 대형의 잡초들이 생장에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면서 생육이 왕성하고 많은 종



오 세 문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자를 생산하므로 최근 우리의 생활주변과 아산에 이러한 잡초가 군락을 형성하여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덩굴성의 가시박, 환삼덩굴, 담쟁이덩굴, 칩, 머느리배꼽 등은 주변 식물의 피복은 물론 나무도 감아 올라 고사시켜 생활주변의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대형의 단풍잎돼지풀과 미국자리공은 주변 식물의 생태계를 단순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우리 생활주변에 발생하여 문제가 되는 잡초를 그저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 잡초의 피해양상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도록 알려져 확산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 단체와 함께 신뢰받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을 위해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운동으로 깨끗한 농촌 만들기, 안전한 농산물 만들기, 농업인 의식 선진화 등 3대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생활주변의 문제 잡초를 제거하는 일도 깨끗한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일환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들 잡초 제거에도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Y